

KIA '센터라인' 갈수록 강해진다



안치홍-김선빈 키스톤 콤비 공백

최용규-강한울, 예상 밖 찰떡 호흡

이대형 빠진 중견수 자리 김다원 '필필'

절실함과 믿음이 '호랑이 군단'의 센터라인 고민을 풀었다.

2015시즌 투쟁을 열기 전 KIA 김기태 감독은 센터라인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다. 내야를 지휘하던 '키스톤 콤비' 안치홍-김선빈의 동반입대 속 중견수 이대형이 특별 지명으로 kt로 옮기게 되면서 센터라인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센터라인에 대한 우려에 김 감독은 "센터라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른 선수에 대한 실례다. 많은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이들도 우리 선수다"고 말을 아꼈다.

수장의 배려와 믿음 속에 겨우내 센터라인의 경쟁이 이뤄졌고,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일단 예비역 최용규가 2루를, 2년차 강한울이 유격수를 맡는 것으로 '키스톤 콤비'가 꾸려졌다. 외야 중심은 김원섭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김다원의 자리가 됐다.

초반 분위기는 좋다. 착실함이 무기였던 김다원에게는 실력이 더해졌다. 타고난 힘에 정교함이 가미되면서 타석에서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 리그 최상급 수비는 아니지만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외야에서도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용규의 부지런한 활약도 눈에 띈다. 2루를 전전했던 3

년,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던 군입대 과정 이후 수색대에서 군복무를 하며 흘러보낸 4년. 최용규는 마무리-스프링 캠프에서 이를 악물고 4년의 공백을 털어냈다. 남치는 의욕에 실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신인 보다 신인 같은 움직임으로 2루와 타석에 서고 있다.

팔꿈치 부상으로 캠프 막바지에 짐을 쌓던 강한울도 우려를 뒤로하고 자리를 꿰찼다. 시즌 초반에는 시범경기 때와는 다른 타격으로 속살이도 했지만 경기가 거듭 될수록 스피드와 센서는 자신의 장점이 서서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실함'이 이들의 가장 큰 무기다. 이제야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지만 김다원과 최용규는 85년생 동갑내기다. 우리나라 나이로 벌써 서른한 살. 뒤늦게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두 선수는 약처럼 캠프를 보냈고, 새 마음으로 매달을 맞고 있다. 두 선수는 약처럼 타석에 서고 거침없이 슬라이딩을 하면서도 "몸을 사릴 입장이 아니다. 오늘 하루만 산다"고 말을 하고 있다.

강한울도 좌중우돌하던 신인티를 벗고 한층 성숙했다는 평가다. 야구에 대한 절실함도 커졌다. 지독한 타격 부진과 불운에 시달렸던 강한울은 지난해 남모르게 자신만의 '의식(?)'을 치렀다. 타격에 눈을 뜨기를 바라며 배트에 눈을 그리고 나온 강한울은 막걸리까지 뿌리며 타격부진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했다. 다른 아들에게는 장난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강한울은 간절했다.

아직은 주전 자리가 어색한 세 선수도 종종 쑥스러운 실수도 나오고 있지만 '경합'이라는 무기가 가다듬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찌 됐든 감독의 믿음과 선수들의 절실함으로 KIA의 센터라인이 우려를 털어내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다원



강한울



최용규



스포츠계, 세월호 참사 추모 물결

ML 추신수

"자식 둔 부모로 가슴 아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된 16일 스포츠계에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졌다.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는 이날 "자식을 둔 부모로서 어른들의 실수로 귀중한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은 사실이 마음 아팠다"면서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친구들이 제대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건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선수단과 함께 유니폼에 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 재키 로빈슨을 기리는 날이어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투수 류현진은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에 동참했다.

원 어깨 통증으로 아직 재활 중인 류현진은 이날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 경기가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 더그아웃에 노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나타났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유니폼에 승인받지 않은 패치 등을 부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류현진은 노란 리본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女 골프남자들 리본 달고 1R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도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김세영(22·미래에셋)과 김효주(20·롯데) 등 한국선수들은 모자에 노란 리본을 달고 경기를 하며 1라운드를 마쳤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희생자 추모에 동참하기 위해 잠실(KIA-LG), 문학(넥센-SK), 사직(NC-롯데) 경기에서 시구 행사와 치어리더 응원·엠MC 사용을 하지 않고, 경기 전 선수단 전원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 묵념을 하기로 했다.

맨유, 한글판 홈페이지 추모 성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 맨유는 이날 한글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1주기를 추모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

맨유는 "1년 전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당시의 충격을 전했다. 맨유는 "여전히 세월호를 기다립니다"라며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빠진 한국 국민들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K리그, 응원 자제 권고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15일 K리그 클래식 6라운드 경기에 서 과도한 응원과 골 세리머니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성남FC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자체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추모했다. 성남FC는 경기 전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로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또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구단 관계자들이 왼쪽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 양팀 서포터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현수막을 경기장에 설치했다.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도 노란 리본을 달고 경기에 출전했다.

울산 현대는 15일 열린 저녁 홈경기에서 하프타임에 불꽃놀이 이벤트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경기 전에는 선수들이 세월호 추모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서포터스 '차용전사'는 실종자 9명을 기리는 취지에 서 경기 시작 후 9분간 응원을 하지 않았다. /연협뉴스

KIA 어린이 팬 지킴이 나선 '아이쿠'

KIA-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협약... 오늘 넥센전 시구도

KIA 타이거즈 어린이 팬의 안전·건강 지킴이로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이쿠'가 나선다.

17일 챔피언십필드에서 열리는 넥센과의 홈경기에 캐릭터 아이쿠가 시구자로 나서 KIA의 승리를 기원한다. 이에 앞서 아이쿠는 3층 콘코스에서 진행되는 챔피언스 퍼

레이드에 참가해 경기장을 돌며 어린이 팬들을 만나고, KIA 주장 이범호와 기념촬영을 한다. 또 경기 전 전광판을 통해 '우당탕탕 아이쿠' 제조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광주 업체인 마로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우당탕탕 아이쿠'는 외계에서 온 왕자 아이쿠가 지구생활에 적응하는 모



습을 그린 어린이 안전교육 애니메이션으로, EBS를 통해 인기에 방영되고 있다.

이날 시구와 이벤트는 KIA와 '우당탕탕 아이쿠'의 제작지원기관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두 기관은 아이쿠를 활용해 어린이 안전·건강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일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남자들 출발이 좋다

LPGA 롯데 챔피언십 1R 김인경·최나연·김세영 등 줄줄이 상위권

김인경(27·한화)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김인경은 16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오아후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6383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8개를 낚아 7언더파 65타를 쳤다. 2010년 11월 로레나 오조아 인비테이션에서 LPGA 투어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뒤 이번이 정상 문턱에서 돌아섰던 김인경은 단독 선두로 나서 4년 5개월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10번홀에서 출발한 김인경은 11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냈지만 버디 3개를 낚아 2타를 줄이며 전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 김인경은 7~9번홀까지 3개를 연속 버디를 잡는 등 5개의 버디를 추가하며 리더보드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 2위도 한국 선수를 차지했다. 최나연(28·SK텔레콤)과 김세영(22·미래에셋),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5

언더파 67타를 쳐 단독 선두에 2타 뒤진 2위 그룹을 형성했다.

최나연은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묶어 지난 1월 열린 시즌 개막전 코츠챔피언십에서 시즌 두 번째이자 통산 9번째 우승을 위한 발판을 놓았다.

10번홀에서 출발, 전반에 1타를 줄이며 샷 감각을 조율한 최나연은 후반들어 급피치를 올렸다. 최나연은 1번홀(파5)에서 1타를 줄인 것을 신호탄으로 이후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추가했다.

바하마 클래식 우승자 김세영과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우승자 박인비도 우승 경쟁에 가세했다. 2주전 끝난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역전패를 당했던 김세영은 28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를 앞세워 5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김세영과 같은 조에서 경기한 박인비는 5언더파 67타로 2위 그룹에 합류,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연협뉴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레저산업구조가 16일 발표한 '2014 골프장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142개 회원제 골프장(제주권 제외)의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7%로 집계됐다.

앞서 2013년에는 2.3%였다. 회원제 골프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영향으로 급감한 내장객 수를 만회하기 위해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대폭 할인해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의 영업이익률 -14.4%였으며 영남권도 -1.2%였다.

102개 퍼블릭 골프장의 영업이익률도 27.4%로, 2013년 28.0%보다 0.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릭 골프장은 홀당 이용객수가 0.3% 감소한 데다 고액유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객단가가 떨어져 영업이익률이 소폭 하락했다. /연협뉴스